

**불안정한 행동!**  
**안전수칙**  
**준수 필수**

통상 안전사고를 생각할 때 어떤이는 그것을 필연이라던가 혹은 우연이라고 단정짓고 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다.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차에 받혀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가상해 보자. 그 부모는 부상을 당한 어린이에게 “왜 거기서 자전거를 타니, 타면 안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은 일진이 사납고 팔자가 세다는 등 발을 동동 구른다.

재해예방 활동은 바로 이러한 비극을 막는다는 비장한 각오 아래 전개해야 하며 재해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재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재해의 원인은 재해의 발생과정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안전사고는 사람이 움직이든, 물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양쪽이 모두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 하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상태라고 한다. 이 행동과 상태가 불안정할 때 안전사고의 중요요인이 되므로 재해의 요소란 바로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로 구성 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행동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개성에 따라서 옮겨지는 행동이 다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시켜보면 열사람이 모두가 다르다.

즉, 개성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습관이 생기게 되며 습관이 잘못되면 불안정한 행동을 잉태하므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다. 안전에도 이러한 규칙이 있다. 바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건설현장에 50명의 작업자가 일 한다고 할 때 각자는 개성이 달라서 습관이 모두 다르며 이를 그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수칙을 정하고 적응하도록 애써야 한다.

특히, 안전이란 사전에 대책을 생각해서 조치하는 일이며 재해가 발생한 후 그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나 비극을 막는다고 비장한 각오 아래 시작하여 불안정한 행동의 억제를 위해서 각자의 불안정한 습관을 미리미리 고쳐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현대문명의 이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현대인이라 자부할 수 있게 된다. 